



문 : 요즘 어린이 당뇨병이 늘고 있다던데 사실인지요 ?

답 : 당뇨병은 40대 이후에나 나타나는 성인병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어린이와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왔으나 사실 어린이에게도 최근 당뇨병이 부쩍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소아 당뇨병이라고 부르는데, 설탕의 과다 섭취라던가 유전에 의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되나 아직 원인은 확실치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린이 당뇨병은 어른과 달리 거의 무관심속에 있다가 갑자기 혼수에 빠져 병원에 와서야 당뇨병인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모나 교사의 관심과 정기적 검사(소변검사 등)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어린이 당뇨병은 대개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체질이 마른편의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하고 특별한 원인없이 혈당치나 요당량이 격심하게 중요하며 먹는약 보다는 인슐린주사를 필요로 하는 등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 : 어떤 어린이에게 당뇨병 검사가 특별히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답 : 증상이 있기전에 미리미리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어린이 건강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며 당뇨병 어린이라고 해서 모두 눈에 띄게 증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기검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꼬집어서 이런 어린이에게는 특히 당뇨병검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라면

- ① 필요이상의 물을 먹는 어린이
  - ② 소변을 자주, 그리고 많이 보는 어린이
  - ③ 몸무게가 줄고 마르는 어린이
  - ④ 식욕이 없어 보이는 어린이
  - ⑤ 구역질이나 구토를 자주하는 어린이
  - ⑥ 몹시 피곤해 하는 어린이
  - ⑦ 피부가 거칠거나 가려워하고 부스럼이 많으며 작은 상처에도 자주 굼는 어린이
  - ⑧ 배가 아프다며 변비, 설사가 있는 어린이
  - ⑨ 얼굴에 빨강게 홍조를 띠 어린이 등을 들고 싶고 이들에게 곧 당뇨병검사를 받아보도록 권고하고 싶습니다.
- 한편 지금은 어른들의 보호하에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들이지만 이들은 내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어린이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는 어른들의 보살핌과 일상생활의 관찰도 무엇보다 어린이 건강관리를 위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겠습니다.

〈조사연구부 자료제공〉